



동영상 다루는 재미가 쏠쏠한 DVD 제작 솔루션  
스내찌 III USB2 골드 디렉스



리뷰 : 최필식 기자

**평가**

성능 ★★★★★☆  
안정성 ★★★  
편의성 ★★★★★☆  
부가 기능 ★★★★★☆  
종합 평가 ★★★★★

**가격**

미정

**문의처**

태남정보통신(02-567-4440,  
www.taenam.com)

**제품 구성**

스내찌 III USB2 본체, USB 2.0/1394 PCI 카드,  
AV케이블, S-VHS 케이블, USB 2.0 케이블, 전원  
어댑터, 무비밀, 미디어 스튜디오 프로 6.5 VE, 원  
프로듀서 3, DVD 워크숍, 설명서

**제품 사양**

인터페이스 USB 2.0/ USB 1.1  
비디오 포맷 MPEG-2/ MPEG-1  
오디오 포맷 MPEG/ PCM  
최대 해상도 NTSC 720 480/ PAL 720 576  
포트 S 비디오 포트 1개, 콤팩트 포트 2개, 스테레  
오 입력 단자 2개(이상 외장 스내찌), USB 2.0 포  
트 5개, IEEE 1394 포트 3개(이상 PCI 카드)  
크기 170 120 30mm  
무게 400g

**테스트환경**

운영체제 윈도XP  
CPU AMD 애슬론 XP 1900+  
메인보드 엔비디아 엔포스 칩셋 메인보드  
메모리 256MB  
하드디스크 바라쿠다 60GB  
그래픽카드 GeForce2 GTS

**제품 특징**

실시간으로 영상을 압축해 MPEG-2 포맷으로 저  
장한다/ 풍부한 소프트웨어가 들어 있어 편집과  
DVD 리코딩이 간편하다/ USB 2.0과 IEEE 1394  
단자가 있는 PCI 카드를 포함, 다른 외장형 장치와  
캠코더를 곧바로 연결할 수 있다.

한번 맛들인 음식은 쉽게 잊지 못하고, 자꾸 먹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다. 보는 것도 먹는 것과 다르  
지 않아서 자주 좋은 것을 보고 익숙해지면 으레 보는 눈이 높아지게 마련이다. 처음 PC에 동영상이  
실현됐을 때만 해도 마치 꿈속에서의 일인 양 놀라워하던 사람들도 요즘은 DVD보다 못한 동영상은 아  
예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개인의 시각적 욕구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DVD에 눈높이를 맞춘  
동영상 제작 환경을 갖추는 것이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다. DVD 포맷으로 동영상을 저장하는 장비와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충분하다. 스내찌 III USB2 골드 디렉스는 이런 환경을 더욱 쉽게 만드는 동영상  
인코딩 솔루션이다.

**DVD 포맷 저장과 화질 탁월**

DVD 동영상 제작에 꼭 필요한 것은 영상을 파일로 바꿔주는 인코딩 장비와 소프트웨어다. 반드시 2가지를 모두 겸비해야만 작업이 가능하다. 스내찌 III USB2 골드 디럭스는 외장형 인코딩 장비와 편집 소프트웨어를 한 묶음으로 담은 제품이다. 외장 인코더인 스내찌 III USB2는 생김새가 단순한 만큼 사용 방법 역시 간단하다. 2개의 입력 단자에 비디오나 캠코더, 그 밖의 영상 기기를 연결하면 설치를 거의 마친 셈이다. 외장 인코더는 USB 2.0 방식으로 PC에 연결한다. USB 2.0은 480MB/sec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하므로 스내찌 III USB2가 아무리 많은 동영상 데이터를 처리하더라도 프레임 드롭 없이 PC로 전송하기에 무리가 없다.

구형 메인보드는 USB 2.0 기능이 없으므로 스내찌 III USB2 골드 디럭스에 있는 USB 2.0 PCI 카드를 끼워야 한다. 이 카드에는 IEEE 1394 포트까지 들어 있어 곧바로 디지털 캠코더와 연결해 쓸 수 있다. 약간의 하드웨어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인코더와 PCI 카드를 설치하는 데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스내찌 III USB2의 기본 프로그램인 무비 밀(Movie Mill)은 입력 단자를 선택하고 녹화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DVD 포맷의 동영상을 만들고, VCD 또는 SVCD 포맷으로 저장하거나 동영상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무비 밀을 이용해 3분 분량의 동영상을 반복해서 저장해 본 결과 외장형 인코더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프레임 드롭이나 영상과 음성의 불일치는 일어나지 않았다. MPEG-2 포맷으로 해상도는 720 480픽셀, 비트레이트는 5Mbps였고, 오디오는 224Kbps에 MPEG 포맷이었는데 화질과 오디오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이를 반복해 실행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왜곡이 없는 깨끗한 소스를 이용해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다. 일반 비디오 단자로 입력해 처리한 영상의 화질은 일반 캡처 보드를 이용할 때보다 훨씬 좋았다. 국내 방송 표준인 NTSC 방식으로 저장할 때 최소 해상도는 160 112픽셀, 최대 해상도는 720 480픽셀이다. 모두 13개의 해상도를 선택할 수 있다.

#### 캡처와 편집을 따로 하는 불편

스내찌 III USB2 골드 디럭스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는 기본 프로그램인 무비 밀을 비롯해 원프로듀서 3, 미디어스튜디오 프로 6.5 VE, DVD 워크숍, 플립 앨범 슈트 4.2, 쿨 3D, 원DVD 4 등이 번들로 들어 있다. 저장이나 편집 성격에 따라 제각각 다른 프로그램들이 들어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무비 밀에서만 캡처가 된다는 것. 편집 프로그램을 위한 캡처 드라이버가 없는 탓에 편집 프로그램의 캡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무비 밀은 자체적으로 캡처 드라이버를 갖고 있는 덕분에 캡처가 가능하다. 공용 드라이버가 나오기 전까지 무비 밀로 캡처한 다음 데이터를 옮겨 편집 프로그램에서 작업하는 수밖에 없다. 스내찌 III USB2는 전문가를 겨냥한 제품이 아니다. 누구나 쉽게 강력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솔루션이다. 그런 만큼 프로그램 구성이나 사용 방법에 대해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사용 대상이 초보자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Copyright 1996-2003 HOWpc All Rights reserved.

<http://www.howpc.com>